

앞으로 管理해야 할 特殊寄生虫



■ 韓 仁 洙

년 1-2회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 발견

몇가지 흡충류의 성충이 사람의 간장이나 폐에 기생하고 또 일부성충의 유충들이 일시적으로 기관을 침입하고 또 어떤 원충류가 폐를 침범하는 경우등이 있다. 간장에 기생하는 대표적인 흡충은 간흡충(간디스토마)인데 이것은 주로 극동지방에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풍토병의 일종이다. 이 기생충은 1874년 Mcconnel이 캘커타에서 한 중국인 목공의 담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11년 고바야시(小林晴治郎)가 제 2중간숙주를 발견하였고 6년후 1917년에 무도(武藤昌知)에 의하여 제 1중간숙주가 증명되어 본 충의 생활사가 확립되

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간흡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을만큼 무서운 기생충병이다. 간흡충이 담관내에 기생하면 담즙 유출에 지장이 생기고 또 담관이나 그 주위조직에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담관이 확장 비대되며 또 간세포는 변성, 위축, 괴사하여 차츰 간경변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간장의 변화로 말미암아 환자는 처음에는 식욕을 잃으며 이어서 전신권태, 설사, 복부의 팽만감, 간종대(肝腫大) 등을 나타낸다. 더욱 진행되면 복수(腹水), 부종(浮腫), 황달 및 빈혈에까지 이른다. 이같은 간흡충의

감염경로는 담수어를 생식하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조리한 후 섭취하면 유충이 영구적으로 인체내에 들어와서 간(肝)에서 발육하여 성충이 되고 산란하게 된다. 따라서 기생충수는 섭취된 유충수에 좌우된다.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는 담수어중 간흡충 피낭유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것은 참붕어를 위시한 잉어과에 속하는 어류가 중요하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참붕어 한마리에서 최고 13,528마리의 피낭유충을 수집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유충은 인체에 들어와 20~30일이면 성충으로 자라며 산란을 시작한다. 수명은 약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한번 감염되면 간속에서 20년간 기생하므로써 간에 피해를 주는 기간이 다른 기생충에 비하여 장기간이기 때문에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같이 간흡충 감염은 국민보건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감염율이 높고, 분포지역이 넓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생태학적으로 간흡충 감염이 풍토병적으로 존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고루 갖고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큰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유행지가 형성되어 있다. 남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섬진강, 및 낙동강등의 유역 별판에는 거의 예외없이 유행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지역에서는 마을 주민의 5%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간흡충 감염자 수는 최근 조사를 기초로 할때 아무리 적게 평가해도 100만명은 넘는다. 즉 1981년 전국민의 표본조사인 제 3 차 한국 장내 기생충 감염 현황에 따르면 총란양성율은 2.6%로서 감염자 수를 99만 8천명으로 추산하였고 1979년에서 1980년에 전국 하천 유역주민 13,373명을 검사한 서 등(1981)의 조사 결과로는 총란 양성율이 21.5%로서 전국 하천유역주민의 수를 4백만명으로 하여도 감염자 수가 83~89만명의 범위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천유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약 3천4백만명에 있어서의 감염을 고려하면 100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있다고 추산함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협회가 보건사회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간흡충 치료 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 5대강 유역의 36개지역 168,877명의 주민을 검사한 결과 22,423명이 간흡충 양성자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진양군 일부면은 55.2%의 양성율을 나타냈고 이지역 집단감염의 현상이 뚜렷하다. 이상의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간흡충 감염인구가 얼마나 많고, 국민보건 문제로서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로 간흡충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많다는 점이다. 앞에서 약간 언급한바 있으나 간흡충 감염자에게 제일 흔한 증상은 심한 피로감, 상복부 통증등으로써 흔히 40세를 전후하여 노동력을 상실한다. 여기에 겹쳐 담관염,

담석증, 담관폐쇄등의 증상이 흔히 발생하며 감염자중 일부는 담도암으로 발전하거나 간경변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임 등(1973)은 대변내 총란 배출량에 따른 감염자의 자각증상 출현 빈도를 조사한바, EPG(변 1gram 속 에 분포된 총란수) 1,000~9,900사이에서는 82.6%, EPG 10,000~29,900 에서는 83.3%, EPG 30,000 이상 에서는 88.9%가 각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한 간흡충 역학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간흡충 감염자의 5-10%가 EPG 10,000 이상 감염으로 인하여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10만명 이상이고, 간흡충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만명이 있다고 분석된다.

셋째 우리나라 농촌주민이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맛을 들여오고, 좋아하는 민물 생선회를 짧은 기간동안 보건교육이나 예방교육을 하여 먹지 않게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보건교육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들의 간흡충 감염율은 낮다. 실제로 감염율이 높은 성인층에게는 보건교육을 보다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국민 각자가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최근에 국내에서 간흡충 치료약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므로 간흡충 감염 여부를 확인 즉 변검사를 실시하여 간흡충을 조기에 치료를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염려스러운것은 치료약이 있으니까 민물회쫄 먹어도 된다는 방심은 자신의 건강증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재인식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보건사회부는 간흡충을 조기에 박멸 및 예방코저 간흡충 치료 사업을 84년에는 168,000명, 85년에는 442,000명을 대상으로 동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확대하여 88올림픽전까지 간흡충 감염을 극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다. 5대강 유역 검사대상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끝으로 86아시아인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할 외국 선수나 임원 및 관광객이 간흡충뿐만 아니라 각종 풍토병에 감염되어 우리나라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년 1~2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흡충을 조기 발견, 조기치료 한다면 건강한 복지국가 구현에 진일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기협·건협 검사부장〉

이달의 기생충 표어

기생충 없는나라

올림픽에 승리한다.

• 한국기생충 박멸협회